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그리스도 안에 확신 [빌립보서 3:1-1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5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오늘 설교본문은 "종말로"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중심 주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원자로 영광 드러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찾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 영광스런 구원(예수님께)에 다른 무엇을 첨가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빌립보서 3:1b) **이것은 오직 은혜이자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은 "개들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빌립보서 3:2). (잡종견들은 길거리에서 으르렁거리며 그들이 할 수 있는 누구든 공격하고 집어삼키려합니다.) 영아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이와 동일한 부류입니다. 로마서 2장은 할례는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만 유효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율법을 모두 지키는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원의 첨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복음을 대하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신시켜 주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진실은 편파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거나 결코 구원받지 못할 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죄를)회개하고 (그리스도를)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있습니까? 바울은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며,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바리세파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였으며, 율법 앞에 어떤 흠도 없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유아세례와 학습세례를 받았으며 공동체를 섬기고 교리교육과 성경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십일조를 신실하게 드리고 모든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싸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 모든 것은 한 날 배설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

이는 우리는 그저 잃은 양 일뿐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반대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 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언약백성이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고, 영 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 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 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죽게 하시고 그 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 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겐 결코 육신의 자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 분께서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영생)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 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 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 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8).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모든 것은 배설물일 뿐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영원하 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 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결국 마지막엔 모두 사라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 습니까? 우리가 얻기 위해(결코 잃을 수 없는 것) 버려야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은 오직 그 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짐 엘리엇*** - 필립 제임스 엘리엇(Philip James Elliot, 1927년 10월 8일 ~ 1956년 1월 8일)는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이다.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 및 세계 성서번역 선교회(GBT)선교사이며,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시작시에 순교하였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9E%84%EC%8A%A4_%EC%97%98%EB%A6%AC%EC%97%87